

특별기획

군산시장 시정성과 비전 제시

익산시, 공원관리 실명제 운영

앞으로 익산시 모든 공원에는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적힌 공원관리자의 표지판이 부착된다.

익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및 녹지는 117개소 308ha(305만㎡)에 달한다.

산림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험근린공원 등 70개 공원과 47개의 녹지 등에 전 직원의 실명제 이름표를 공개 부착해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관리 실명제’가 정착되어 시민이 민원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가 실시되면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리자 책임 하에 즉시 접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화 등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알려 민원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야간점검과 공원 산책로 주변 제조작업, 전지작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데 공원과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일본 다카마쓰와 스포츠 교류 통한 우의 다져

군산시는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에 펼쳐진 2016 선포트 다카마쓰 트리아슬론대회에 참여해 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의를 다졌다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이번 다카마쓰시 방문은 군산시 및 군산 철인 3총회(회장 박지훈)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해 국제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군산 새만금 그레이트맨대회 및 선포트 다카마쓰 트리아슬론대회 간 친선교류 정례회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참여한 다카마쓰시 트리아슬론사업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양 도시 트리아슬론대회 친선교류가 정식 체결됨에 따라 향후 한일 도시간 체육분야 교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해경, 어업인 국민방재대 창설

해양경찰이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어업인으로 구성된 국민방재대를 창설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일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방재대를 운영하고 보다 신속한 초동방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방재대를 발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방재대는 육도면 선유도 지역 어업인으로 구성됐으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경은 방재장비를 제공하고 이들은 인력과 선박을 제공해 방재활동에 임하게 된다.

방재대는 해양경찰과 함께 방재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내에는 비응도와 신시도 2개 지역에 방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선유도 방재대 포함 총 3곳으로 늘어났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청사 보강공사 완료

익산시는 건립된 지 46년이 경과되고 있는 시청사 건축물을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부재 내구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를 지난날 말 완료했다.

이와 함께 청사 외벽 도색 공사를 새로이 실시해 방문 민원인들에게 깔끔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청사 주변의 지나치게 쉬운 공간에는 호박, 가지, 냉클식물, 꽃 등을 식재해 울려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다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비록 오래된 청사지만 앞으로 세세한 곳까지 신경 써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제임 10년간 기업유치·인구증가...향후 국제공항 건설 등 박차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1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4기부터 6기에 이르기까지 10년간의 시정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다.

이날 문 시장은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페이퍼 코리아 공장 이전, 새만금내부 개발과 국제공항 건설 등 굵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문동신 시장이 2006년 민선4기 첫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군산시 인구는 최저점인 26만 562명으로 감소세였고, 산업단지 분양율은 고작 23%에 불과했으며 관광산업은 볼모지나 다름없었다.

문 시장은 이를 타개하고자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시정 목표로 세우고 ‘풍·화·격’을 갖춘 명품도시’ 구현을 통해 군산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난 10년간의 주요 성과를 보면, 2006년 취임 이후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지엠, 타타태우, 도레이, 솔베이 등 480개의 기업을 유치해 총 22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58,132명 고용창출로 지역발전 동력 창출효과를 거뒀다.

2007년에는 직도시격장 허가를 통해 총 11개사업 3,437억5천만원의 규모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고군산군도연결도로, 근대역사경관조성,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구축, 군산예술의전당, 진포해양테마공원 등을 조성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군산을 대한민국 근대문화도시 메카로 부상시켰다.

2011년 개관한 근대역사박물관은 전국 최대규모 박물관 선정됐으며 2016년 6월 누적관객 220만명을 돌파했다. 이 밖에 근대역사벨트화사업, 근대역사경관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 중인 근대역사경관지구는 2013 대한민국경관대상, 2014 아시아경관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새롭게 태어났다.

문 시장은 품격있는 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해 교육·의료·문화·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을 통한 품격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15년 시 단위 최초로 어린이행복과 신선행복 어린이예산서 발간, 어린이행복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재양성과를 신선행복 교육발전 진흥재단을 설립해 1,468명의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 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금석배추구 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연간 2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시는 인구증가와 재정규모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냈다.

군산시 인구는 2006년 260,989명에서 2016년 278,399명으로 17,410명이 증가했고, 지방예산은 2006년 4,905억원에서 2016년 10,155억원으로 5,250억원 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조 3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2006년 4,607억원 대비 5,43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동신 시장은 “항상 시민은 옳으며 시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군산을 만들겠다는 ‘市利萬事成’의 경영철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스스로는 물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시장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지난 10년동안 풍·화·격을 갖춘 명품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준 군산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미세먼지 감소 대책마련 나서

관련부서 협의통해 경유 시내버스 교체 등 오염물질 감축키로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신산업육성 등 34개 사업을 추진,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4%를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군산시는 날로 증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환경분야 등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까지 경유 시내버스 274대를 천연가스 및 하이브리드 버스로

교체하고 전기자동차 4대를 구입하는 등 대기 오염물질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북도와 협의를 통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장 및 상가건물 등에 대해 일반버너를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저녹스버너로 교체 한바 있으며, 올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친환경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장 배출원 관리도 한층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와의 공조체계를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양동 일원(약21961㎡)에 습지, 수로, 나무식재 등 자연마당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내 일원에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숲과 명상숲 가로수 조성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방제 발생 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 배포해 주의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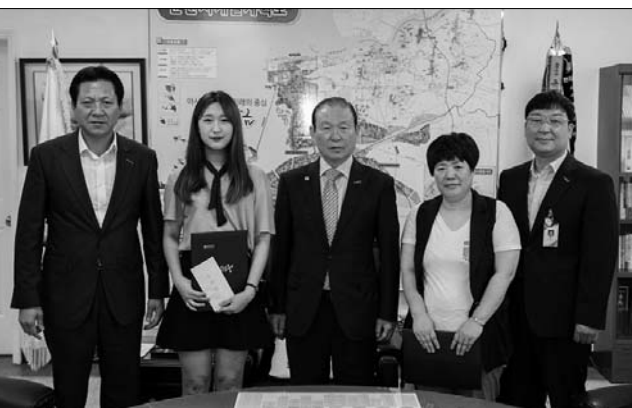
군산시는 시간여행축제의 경쟁력 향상을 진행 된 내가 만드는 시간여행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프로그램, 시설물 홍보 아이디어, 리플렛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로 총 47명이 응모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총 4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우수상으로는 ‘헤시태그(#헤시태그)를 응용한 SNS 홍보’ 윤하빈(21·여)씨와 아이디어와 시간여행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근대거리 조성’ 전은경(40·여)씨의 제안이 선정됐다.

근대거리 조성 제안은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정체성을 살려 근대시대 거리를 연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응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려상에는 군산의 근대산업을 되돌아보는 ‘근대산업 기획전’ 노창식



(47·남)과 뱀주사리 놀이를 활용한 리플렛 제작 김윤희(49·여)씨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접목해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는 한층 더 발전된 축제를 만드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개관 2주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하반기 풍성한 행사 이어져

지난 2014년 7월 개관한 지스코는 지난해 150여개 행사를 개최해 8만여 명이 방문, 약 250여원의 지출과 840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하반기에는 심리학회학술대회(1000명), 한국기록교연합회행사(2500명), 전국농협조합장대회(500명), 한국전자통신학회학술대회(200명)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9월에는 전 세계 21개국에서 50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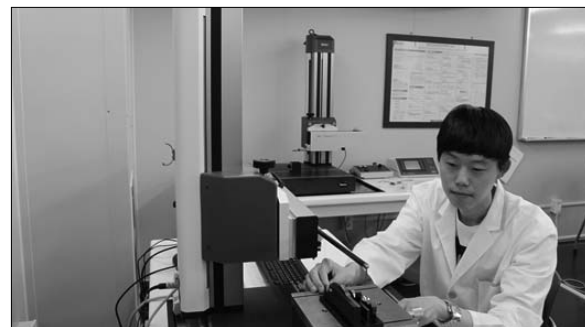
UCLG ASPAC 총회가 10월에는 전국 컨벤션 관계자(PCO, 여행사, 국제회의 관계자 등)가 참가하는 한국컨벤션학회 학술대회(300명)가 개최될 예정이다. 컨벤션 행사뿐만 아니라 전국 100여개 대학 180개 팀이 참가하고 수천 명이 방문하는 대학생자자자동차대회와 효남권리니스다트대회, 베이비페어 등 다양한 전시 및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군산시와 지스

코가 직접 주최해 전문시장에서 개최되는 전북 최초의 아트페어 전시회인 ‘소호아트페어’가 개최될 예정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군산의 풍부한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100푸드 한일 페스티벌’ 축제를 개최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문정근기자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나노측정전공 유턴입학 박경환 학생 공공기관 공채 합격

‘유턴입학’이란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대학에 재입학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유턴입학자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2016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4년제 대학 출신 지원자는 전국 126개 대학에 6122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국책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역시 취업에 유리한 사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ITL) 공채에 최종합격한 익산캠퍼스 나노응용기계과 2학년 박경환(31) 학생이다.

박경환 학생은 4년제 국립대학

(전북대학교)을 졸업했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나노측정전공 과정을 이수하면서 품질경영기사와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최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취업했다.

박경환 학생은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우수한 교육 장비와 실습 환경,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 발표 소그룹 프로젝트를 실습과 상호보완적 협업, NCS 교과를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이론과 현장 실무의 미스매치(mismatch)를 줄이기 위해 취업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ITL) 공채에 최종합격한 익산캠퍼스 나노응용기계과 2학년 박경환(31) 학생이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2017학년도 나노측정 및 탄소부품설계가공전공 산업학사학위과정 신입생을 오는 9월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LED+IT 분야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최근 자민아웅(Zaw Min Aung) 미얀마 전 과학기술부 장관과 쾃킨(Kyaw Khin) 서양군 기술대학 부총장을 초청해 LED+IT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세미나 및 기술교류회를 가졌다.

특히 공과대학에서 열린 기술교류회에는 전북지역의 16개 관련 회사가 참여해 상호 기술협력을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원광대는 2015년부터 미얀마와 LED 조명 및 IT 분야에 대한 국제 포럼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얀마 조명 산업과 LED 시장의 현황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자민아웅 전 장관은 “전기가 부족한 미얀마의 조명시장은 중국 및 베트남 제품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조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LED 광원 시장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과 품질, 판매 방법 등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제품은 별로 없고, 증거가 제품들이 시장을 점유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얀마의 에너지 절약형 조명과 연구개발 협력을 소개한 쾃킨 서양군 기술대학 부총장은 “미얀마에서는 유내용 저출력 조명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격과 수명,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활발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과 기술경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을 비롯한

원광대는 2015년부터 미얀마와 LED 조명 및 IT 분야에 대한 국제 포럼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얀마 조명 산업과 LED 시장의 현황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 이어 광원측정 장비(광전자 정밀), 고출력 광원(LED), 육내 LED 조명 등 지역 LED 회사들과 기술 교류회가 진행됐으며, 미얀마 측에서는 LED 조명 분야 교류와 더불어 미얀마 공대 교수들의 원광대 방문 및 지역 기업들의 기술협력 등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LED 연구회와 협동조합에 요청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드림스타트 미아방지용 스마트팔찌 지원 교육

군산시드림스타트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드림스타트 가정 영유아 200여명을 대상으로 미아방지용 스마트팔찌 지원 및 교육을 7월말까지 실시한다.

미아방지용 스마트팔찌 지원은 모든 아동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월드비전전북지역본부의 마이로미 미아방지팔찌 후원을 통해 이뤄졌다. 마이로미 미아방지팔찌는 NFC 태그가 탑재된 미아방지용 스마트 팔찌로 배터리와 충전, 요금이 불필요하고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재질의 반경구역

팔찌로 지원받은 대상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아방지팔찌 지원과 함께 ‘신상정보 유기기’, ‘상황극 연습하기’,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등 부모와 영유아가 꼭 알아야 하는 교육을 실시해 미아방지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군산시드림스타트는 지난해 6월 군산경찰서의 후원을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 영유아 80여명에게 우리아이킴카이트를 지원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